

2022년 군무원 국어 7급 해설 [대장부 학원 국어 강사 신한중]

확실한 실력! 대처동 타!

군무원 국어 새로운 기준!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육군 중위 전역
현) 대처동 이강학원 국어 강사
현) 강남 하이퍼 국어 강사
현) 강남대성 마이맥 국어 강사
현) 육사 / 경찰대 국어 대처동 1타 강사
현) 스카이에듀 국어 강사
현) 군무원 대장부 국어 강사

국어 신한중

군무원 국어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확실한 국어 성적 향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01 검증된 국어! 국어 전문가!	02 대처동 1타 강사	03 추천하고 싶은 국어 강사!	04 군무원 국어 고득점 합격!
--------------------------	--------------------	-------------------------	-------------------------

[총평]

전체적으로 잘 정제된 형태의 시험이었다. 기존 지엽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항의 출제가 줄고, ‘시험 문항 공개’ 이후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을 묻는 시험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기존 군무원 기출이 그래왔듯, 수능이나 사관학교 시험문항을 그대로 출제한 문항이 2문제나 있었다는 점이다.

18번 문항의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지문은 사관학교 1차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을 그대로 발췌하여 출제하였으며, 12번 문항도 고3 교육청모의고사 문항을 그대로 출제하였다. 평소 수능이나 사관학교 시험 유형을 함께 학습하는 것도 군무원 시험에서는 좋은 학습방향이 될 수 있다.

[2022년 7급 군무원 국어]

구 분	어휘	문법	고전문법
2022 7급	1	5	0

어문규정	비문학	문학	한자	작문
1	8	5	3	2

(문법과 어문규정)

2022년 7급 군무원 시험은 전체적으로 어문규정의 출제비중이 줄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문규정에 대한 출제는 군무원 국어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전히 일정 출제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시험문항 공개를 계기로 문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탄탄한 문법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학과 비문학)

문학의 경우 문학사에 대한 지엽적인 지식이나 작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물어보던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다. 문학의 개념어를 정확히 학습하고, 모르는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절대론적 관점)을 충분히 길러왔다면 해결할 수 있는 유형으로 문학도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022년 7급 시험은 현대문학에 포커스를 맞추어 출제하였다. 기출의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고전문학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번 시험만 보고 ‘현대문학만 공부하자’라는 사고는 위험하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에 대한 균형있는 학습은 필수적이다.

비문학은 기존 군무원에서 자주 출제하던 ‘순서 배열, 주제/제목, 내용일치와 추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비문학 지문의 길이도 타 공무원 시험들과 달리 짧은 편이라는 출제기조도 유지되었다.

(어휘, 한자어, 화법과 작문)

어휘와 한자어는 총 4문항이 출제되었다. 특히 군무원 시험이 전통적으로 그래왔듯 ‘한자어’ 비중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평소 한자성어와 독음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학습해야 하며, 고유어에 대한 학습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화법과 작문도 군무원 시험에서는 꾸준히 출제되어 왔던 부분이다. 올해는 화법보다는 작문에 포커스를 맞추어 문제를 출제하였다. 특히, 분류, 분석, 구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했던 5번 문항은 기출을 탄탄하게 학습했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전개방식과

비유법 등은 탄탄하게 학습해 놓아야 한다.

1. ①

[정답해설]

문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관형사'이나, '달리'는 부사이다.

부사는 관형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른 품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부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와는 달리, 주로 용언(동사, 형용사)을 꾸민다. 뿐만 아니라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부사 특징

1. 문장 속에서 주로 용언을 꾸민다.
2. 다른 부사나 관형사,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

[오답해설]

②, ③, ④의 '서너', '어떤', '갓은'은 모두 관형사이다.

2. ④

[정답해설] 오상원, "유예"

갈래: 단편소설, 심리소설, 전후소설

성격: 독백적, 실존적

배경: 6.25전쟁 당시 겨울 어느 산골마을의 눈덮인 들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용

제재: 전쟁, 인간의 존재와 죽음

주제: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겪는 인간의 고뇌

특징: 의식의 흐름 기법

호흡이 짧은 현재형 문장 사용

해당 장면에서는 주인공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여러 감정의 흐름에 기대에 서술되고 있다.

[오답해설]

- ① 해당 장면에서는 포로로 잡힌 군인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그려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주인공의 행동이 아니라,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을 통해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
- ③ 인물들 사이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3. ①

[정답해설]

易地思之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背恩忘德 (배은망덕):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

[오답해설]

- ② **十匙一飯 (십시일반):**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쉽다는 말.
棟梁之材 (동량지재): 나라의 중임(重任)을 맡을 만한 큰 인재

- ③ **人之常情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인정. 또는 생각.

俯首聽令 (부수청령):윗사람의 위엄(威嚴)에 눌려 고개를 다소곳하게 숙이고 명령(命令)대로 좇아 함.

- ④ **吳越同舟 (오월동주):** 어려운 상황(狀況)에서는 원수(怨讐)라도 협력(協力)하게 됨.

守株待兔 (수주대토): 실효성 없는 기대는 공연히 시간만 허비하고, 우연한 행운 또는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4. ④

[정답해설]

성격: 비판적, 반성적, 상징적

어조: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 말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는 어조

시적상황: 1950년대의 자유당에 의한 독재 체제가 국민들을 억누르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던 당시

제재: 부도덕한 현실과 지식인의 죽은 영혼

주제: 무기력한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

특징: 일상적 어휘와 독백적 진술을 사용하여 자유와 정의가 소멸된 현실의 문제 직시, 지식인의 반성을 촉구

염세적이란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사를 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을 '염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정의에 항거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신을 반성하는 것은 맞지만, 염세적 태도를 취한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오답해설]

- ①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에서 자조적인 시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자성'이란 자기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한다는 의미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자성적 어조를 사용하여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1연의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가 5연의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로 변주되고 있다. 이러한 수미 상관을 취해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5. ④

[정답해설]

'분류'는 하위개념(종개념)을 상위개념(유개념)으로 묶는 전개방식이다. 그리고 '구분'은 상위개념(유개념)을 하위개념(종개념)으로 나누는 전개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은 종류가 아니라 구성요소(부품)로 나누는 전개방식이다. ④번 선지에 제시된 내용은 '분석'에 해당한다.

[오답해설]

- ①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소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것이다. **대조**는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를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선지에서 ‘~비하여’, ‘~그것보다 적다.’라고 설명하여 비교와 대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유추**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이다. 선지에서는 ‘은장도’의 특성과 관련하여 장미를 설명하고 있다.
- ③ **예시**는 예를 들어 보이는 것으로, 선지에서 ‘어린 왕자’에서 장미가 등장한 것을 예를 들어 장미를 설명하고 있다.

6. ②

[정답해설]

‘늑늑하다’는 성격이 너그럽고 활달하는 의미이다.

[오답해설]

- ① ‘**머쭈다**’는 동작이 둔하고 느리다는 의미이다.
- ③ ‘**골막하다**’는 담긴 것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는 의미이다.
- ④ ‘**동뜨다**’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7. ④

[정답해설]

‘엮친 데 덮친 격’ - 속담

힘내! 우리는 젊잖아? - 희망적

햇빛처럼 환한 너의 웃음 - 직유

직유는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연결어로 결합하여 직접 비유하는 수사법이다. 예를 들면, ‘그는 여우처럼 교활하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따위가 있다.

은유는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으로 예로는 “내 마음은 호수요.” 따위가 있다.

[오답해설]

- ① ‘하면 된다’는 격언의 인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다.
- ② ‘친구 따라 강남 간다’ - 속담
봄의 새싹같이 - 직유
희망적인 내용 - X
- ③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 격언
희망적인 내용 - X
비유(직유나 은유) - X

8. ④

[정답해설]

傍證(방증): 어떤 일의 진상(真相)을 밝혀 주는 간접적(間接的)인 증거(證據).

- 傍 證 방 증 증거 증

반증(反證)과 헛갈릴 수 있는 단어이니 유의해야 한다.

반증: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

[오답해설]

① 개발이 아닌 개발이 이 문장에서는 적절하다.

啓發(계발): 슬기와 재능을 열어 깨우쳐 줌.

- 啓 發 계 발 발

開發(개발): 1.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 예) 신제품 개발, 핵무기 개발.

2.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들.

예) 유전 개발, 수자원 개발.

3.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예) 자신의 능력 개발.

4.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함.

예) 산업 개발.

② 이 문장에서는 혼동(混同)이 적절하다.

“영화를 보는 동안 나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인지 혼돈이 되었다”처럼 혼동이 올 자리에 혼돈을 쓰지만 현실과 가상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갈피(혼돈)를 못 잡는 게 아니라 **둘을 뒤섞어 생각(혼동)**하기 때문에 가리지 못하는 것이므로 혼동이라고 해야 한다.

混沌(혼돈): 사물의 구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

- 混 섞을 혼 沌 엉길 돈

혼동(混同): 1.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함.

예) 잠이 다 깨지 않았는지 그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켰다.

③ 이 문장에서는 체계(體系)가 적절하다.

체계: 1.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

體制(체제): 기존(既存)의 사회(社會) 질서.

- 體 몸 체 제 절제할 제

9. ②

[정답해설]

해당 글에서는 토착어를 붙이는지 한자어를 붙이는지 서구 외래어를 붙이는지에 따라 상품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방향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해당 글을 주장할 수 있는 언어 순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다.

10. ①

[정답해설]

해당 글에서는 시장 설계의 방법으로 양방향 매칭과 단방향 매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장 설계와 방법'이다.

11. ②

[정답해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운문시
성격: 유미적, 탐미적, 낭만적, 상징적
주제: 모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특징: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로 문학적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드러냄
특정 시어와 시구를 반복
역설법, 도치법 사용해서 모순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순화적 구조, 수미상관 구조 사용

이 시의 화자는 모란이 다시 필 날을 기다리는 것이지, 모란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해설]

- ① 시의 화자는 모란이 지고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기며, 모란이 다시 필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따라서 '기다림이 상실의 미학을 노래한 작품'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나는 비로소 나의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에서 화자는 모란이 지고 난 뒤의 봄날의 상실감으로 인해 설움에 잠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에서 역설적인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봄'은 모란이 피는 찬란한 계절이면서도 모란이 지는 슬픈 계절이기에 슬픔을 찬란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12. ③

[정답해설]

'담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라는 문장은, '담징은 땀을 씻었다.'와 '땀이 이마에 흐른다.'라는 문장을 결합하여 안긴 문장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이마에 흐르는'의 생략된 주어는 '담징'이 아니라 '땀'이 되어야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② ③은 이마에 흐르는'이 관형절이 되어 전체 문장의 **관형어** 구실을 하고 있는 안긴 문장이다.
 ㉠은 '그가 착한 사람임'이 명사절이 되어 **목적어** 구실을 한다.
 ㉡은 '아는 것도 없이'가 부사절로 **부사어** 구실을 하고 있는 안긴 문장이다.
- ④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관형절을 이루어 안긴 문장이다.

13. ②

[정답해설]

(다)와 (라)가 글의 첫 순서로 오긴 부적절한데, (다)는 '반면' 때문에 (라)는 '이렇게 볼 때' 때문에 그러하다. 이러한 접속사가 쓰이기 위해선 앞 문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첫 문장으로 올 수 있는 문단은 (가) 아니면 (나)이다.

(가)는 구체적인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는 포괄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한다. 따라서 흐름상 포괄적인 (나)가 먼저 오고, 그다음 구체적으로 (가) 문단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14. ①

[정답해설]

詰責(힐책) : 잘못을 따져서 꾸짖음.

- 詰 물을 힐 責 꾸짖을 책

[오답해설]

- ② **捕捉(포착)** : 꼭 붙잡음.
 - 捕 잡을 포 捉 잡을 착
- ③ **被襲(피습)** : 습격(襲擊)을 당(當)함.
 - 被 입을 피 襲 엄습할 습
- ④ **斡旋(알선)** : 남의 일을 잘 되도록 마련하여 줌.
 - 斡 돌 알 旋 돌 선

15. ④

[정답해설]

마지막 문단에서 '이 긴장, 이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 온 힘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통해 이는 한계에 부딪쳐 곧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5번째 문장에서 '분수는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라고 이야기한다.
- ② 7번째 문장에서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한다.
- ③ '끝없이 인위적인 힘, 모터와 같은 그 힘을 주었을 때만이 분수는 하늘을 향해 용솟음칠 수 있다. 이 긴장, 이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 온 힘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 ③

[정답해설]

해당 글에서는 영국의 곡물법과 관련하여 농부들과 공장주 사이의 대립되는 입장을 다루고 있다. 농부들은 수입 곡물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것을, 농장주들은 그와 반대로 관세 인상을 반대하며 곡물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 주제는 "영국 곡물법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17. ③

[정답해설]

'한 사람'의 '한'은 수사가 아니라, 수 관형사이다.

수사의 특징

- 조사가 붙어 다양하게 쓰인다.
- 관형사나 용언의 관형형의 꾸밈을 받을 수 없다.
- 접미사에 의한 복수형을 취할 수 없다.

Point)

이러한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수사와 수 관형사**를 헷갈리지 말 것!

ex. **두** 명이 여기 왔다. (수 관형사)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수사)

[오답해설]

‘① 하나, ② 세 곱, ④ 첫째’가 각각 선지에서의 수사에 해당한다.

18. ④

[정답해설]

마지막 문장에서 ‘다만 이 시공간은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4차원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문장을 통해 해당 선지가 적절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 ② 첫 문장에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으로 보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③ 두 번째 문장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물리량으로서 공간이나 다른 어떤 것의 변화에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 받아들여지던 것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이다.

19. ③

[정답해설]

‘여기’는 ‘(지시)대명사’이다.

[오답해설]

- ① ‘그’는 여기서 관형사로 사용되었다.

‘그’

쓰임에 따라 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ex.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대명사)

그와 같은 사실(지시 대명사)

- ② ‘천’은 여기서 관형사로 사용되었다.

- ④ ‘이’는 여기서 관형사로 사용되었다.

20. ②

[정답해설]

4번째 단락에서 광무 3년 때 사용된 문학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문학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에는 학문 일반의 의미로 문학이란 말이 사용되어, 신문학이란 말은 곧 신학문의 별칭이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따라서 현재 ‘신문학’이라는 말은 ‘신학문’이라는 말과 다른 의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21. ②

[정답해설]

버크는 국민은 지도자와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신탁 계약’을 했다고 본다. 따라서 버크는 국민은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버크는 지도자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버크는 국민은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버크가 바라보기에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의 자질은 중요하지 않다.
- ④ 버크는 지도자는 국민의 의견을 좇아 자신의 판단을 단념하면 그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버크는 국민이 지도자에 대한 수용과 비판을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22. ①

[정답해설]

‘탱자’는 둥근 이미지를 나타낸다. 작가는 열매의 모양이 둥근 것으로부터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깨닫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오답해설]

‘② 가지, ③ 모, ④ 이빨’은 모두 직선적인 이미지(부정적)를 나타낸다.

23. ②

[정답해설]

해당 선지의 ‘지’는 ‘기간’을 의미하는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써야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세달’ → ‘세 ∨ 달’ : ‘세’ = 수 관형사
- ③ ‘생각 뿐이었다’ → ‘생각뿐이었다’ : ‘뿐’ = 조사
- ④ ‘노력한만큼’ → ‘노력한 ∨ 만큼’ : ‘만큼’ = 의존 명사

24. ③

[정답해설]

언어에서 ‘능동’이란 주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동사의 성질을 뜻한다.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가 능동 표현으로 바뀌려면 주어가 목적어로, 부사어가 주어로 구조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감기가 철수를 걸었다’와 같이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비문이다. 따라서 능동문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오답해설]

- ① 그 문제가 어떤 수학자에 의해 풀렸다.
→ 수학자는 그 문제를 풀었다.
- ②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읽었다.
- ④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 어머니는 아이를 안았다.

25. ③
[정답해설]

갈래: 장편소설, 사회 소설, 분단 소설, 지식인 소설
배경: 이 소설에는 두 가지 배경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실제적 시간과 공간으로 인도양으로 향하는 타고르호의 위에서의 이틀간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회상의 시간과 공간으로 8·15 해방에서 6·25 종전 사이의 시간으로 공간은 남한과 북한이다.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해당 부분은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약을 팔려고 꼬인 달콤함에 취해있다가 진실(참)을 깨닫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이데올로기의 허상을 깨달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오답해설]

- ① ㉗의 밑줄친 부분 이후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조력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보아 설득자가 주인공에게 남한 사회에 남게 하려고 설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중립국을 선택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린다. 이때 중립국을 선택한 것은 거짓된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④ ㉙에서 제시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허무감, ㉚에서 제시된 '은혜의 죽음'을 계기로 느낀 허무감이 중립국을 택한 이유라고 추론할 수 있다.

2022

군무원 면접

신청

군무원 전문 대장부

1차 신청: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신청
7월 26일 화요일 첫 교육 시작!

2차 신청: 2022년 8월 19일 필합 발표 직후 신청
8월 20일 토요일 첫 교육 시작!

신청 방식: 학원 홈페이지 면접 신청 게시판

면접 커리큘럼

1회차	2회차	3회차
면접 핵심 코칭 자소서 작성법 신원진술서 작성법 기술 질문 120개 답변 제공	자소서 첨삭 1차 면접 교육	2차 면접 교육
4회차	5회차	6회차
3차 면접 교육	전공 질문 & 답변 직렬별 교육 4차 면접 교육	5차 면접 교육
7회차	8회차	+
6차 면접 교육	최종 모의 면접 3(면접관) : 1(수강생)	추가 면접 교육 조별 스터디

군무원 면접 합격 노하우 8~9회차 특별한 전략

1	2~7	8~9
1회차 전체 교육	답변, 태도 피드백	최종 모의 면접
면접 120개 질문 답변 안내 세부적인 답변 안내 이미지 메이킹 입장 퇴장 예절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 고칠 부분 피드백 + 전공 질문 제공	실전 모의 면접 직렬에 맞는 기술 모의 면접
1. 군무원 전문 면접 강사에 의한 피드백! 2. 조별 스터디 모임 구성 3. 직렬별 군무원 기술 면접 질문 답변 제공 + 전공 질문		

군무원 필기 & 면접 전문 대장부



2022 군무원 전문 대장부 면접 합격 프로그램

군무원 대장부 면접 강의는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오로지 군무원 면접만 연구하면서 수강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필 때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전문 면접 강사들이 포진하여 조별로 수강생들을 밀착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어떻게 올바른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수강생들간 조별 스터디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면접에 집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은 8회이며, 추가적으로 1~2회는 무료로 교육 진행합니다.

군무원 대장부 면접은 **1. 대면반 2. 비대면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험생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부터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1차 신청을 하시면 되고, 필합 발표 직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2차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와 2차 면접 교육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대면반, 비대면반 안내

비대면반

횟수: 총 8회 교육 + 6시간 영상 교육 제공

방식: 구글 미트, 줌 활용 (실시간)

조 편성: 1조당 5~6명 (강사 1명)
(회당 2.5시간)

(교육 일정은 조별로 결정합니다.)

A반 비대면: 얼리버드반 (7월 21일 신청)

비용: 42만 원 (수강생)
45만 원 (비수강생)

B반: 국방부 7급 PT 비대면 45만 원

C반(인강 제공반): 10시간 교육 영상 제공
+ 전공 질문 제공

비용: 10만 원 (교재비 포함)

택1

대면반

횟수: 총 8회 교육 + 6시간 영상 교육 제공

방식: 대면 교육 (지역 택1)

서울 지역 - C반 D반 선택 가능

전주 지역 - C반 선택 가능

부산 지역 - C반 선택 가능

수강생이 교육 받을 지역 1곳 선택 가능합니다.

1조당 5~6명 (회당 2.5시간)
(교육 일정은 조별로 결정합니다.)

D반 (5~6명 조)비용: 48만 원 (수강생)
51만 원 (비수강생)

E반: 국방부 7급 PT 대면반
비용: 50만 원

비대면반, 대면반 모두 1조당 강사가 배치되어 교육을 진행하고 **조별 스터디**도 편성해드립니다.

조별 교육 일정은 각자 조에서 강사, 조원들과 상의 후에 결정합니다.